

나주혁신도시 이전기관 협력사 투자유치 본격화

전남도, 서울서 투자설명회 10여 기업 투자意向 5월 현장 시찰 6월중 협약

전남도는 27일 서울투자유치사무소에서 나주시, 한국토지주택공사, 광주시도시공사, 전남개발공사와 합동으로 나주혁신도시 이전기관 협력사 중 수도권지역 소재 기업을 대상으로 맞춤형 투자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투자설명회에 참석한 20개 기업은 주로 한국전력, 한국KDN(주), 한전 KPS(주)의 협력업체로,

수도권 지역에 위치하고 있다. 설명회에 참여한 기업들은 나주 혁신도시 입주에 대해 많은 관심을 나타냈으며, 10여 개 기업이 혁신도시에 투자 의향을 피력했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5월 중 투자자의 향 기업 대표 등을 초청해 나주 혁신도시 현장 시찰 및 사전답사에 나설 계획이며, 이 기업들과 6월 중 투자협약을 체결하기로 합의했다.

도는 수도권을 비롯해 부경권 소재 협력기업 등을 대상으로도 혁신도시 투자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지금까지 도는 2차례에 걸쳐 11개 기업과 혁신도시 입주 관련 투자협

약을 체결했고, 최근에는 대형 아울렛 업체와 투자의향서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는 지난 2008년 행정안전부로부터 전국 혁신도시 중 가장 아름다운 도시라는 평가를 받았고, 혁신도시 중 유일하게 18층의 골프장을 갖추고 있으며, 20만㎡의 중앙 호수공원과 자연친화형 한옥마을 조성, 도시 전체를 실개천으로 연결하는 친환경 생태도시다.

도는 오는 4월 중 혁신도시 산·학·연 클러스터 융지 분양공고가 나면 본격적으로 활성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윤현석기자 chadod@kwangju.co.kr



27일 전남도 서울투자유치사무소에서 열린 나주혁신도시 투자설명회에 참석한 수도권지역 소재 기업 관계자들이 전남개발공사 등 주최측의 설명을 듣고 있다. <전남도 제공>

현대그룹 中 4공장 후보지 충청시 유력

정몽구회장, 쑨정차이 서기 만나 협력방안 논의

현대차그룹 정몽구 회장이 27일 충칭(重慶)시 쑨정차이 서기를 만나 현대차그룹과 충칭시의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충칭시는 중국 5대 중심 도시 중 하나로 중서부 유일한 직할시이다. 또한 산업 전반에 다양한 인프라 및 공업 기반시설을 갖추고, 높은 과학수준과 광대한 시장을 가진 도시로 중국 내 투자잠재력이 가장 큰 도시로 평가 받고 있다.

이러한 기반을 갖춘 충칭시는 그동안 현대차그룹의 투자를 이끌어 내기 위해 토지 공급, 우수인력 등 시정부차원의 최대한 지원을 제공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현대차그룹도 현대차 중국 4공장의 후보지로 충칭시를 검토 중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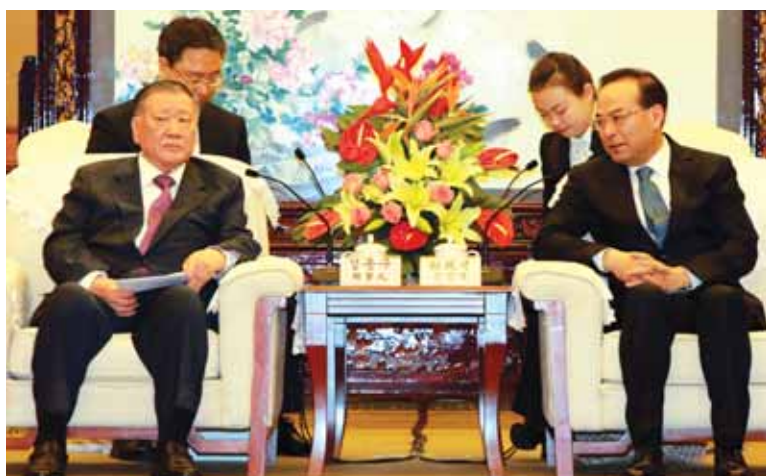
정몽구 회장은 충칭시 위저우 호텔에서 쑨정차이 서기와 면담을 갖

고 “충칭은 완성차 공장의 입지로 최적의 조건을 갖춘 도시”라며 “현대차가 중국 내륙 관매 확대는 물론 중서부 자동차산업 발전에 큰 역할을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현대차가 중국을 대표하는 자동차 기업으로 성장하기까지 공장이 입지한 지방 정부의 도움이 컸다”며 “중국 시장에 최고 품질의 자동차를 지속 공급해 고객의 신뢰에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쑨정차이 서기도 “현대차는 그동안 중국 시장에서 거둔 눈부신 성과로 중국 진출 기업들의 모범사례로 인정받고 있다”며 “현대차 공장 건설이 성공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시 정부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임동률기자 exian@kwangju.co.kr



정몽구 회장(왼쪽)이 충칭시 위저우 호텔에서 쑨정차이 서기와 면담하고 있는 모습.

화물차 개조 푸드트럭 하반기 허용 전자상거래 공인인증서 5월 폐지

규제개혁 과제 52건 중 정부 41건 연내 개선

테마파크나 놀이공원에서 일반 화물차를 개조해 음식을 파는 푸드트럭이 하반기에 허용된다. 학교 주변에도 유해시설 없는 관광호텔이 허용된다. 이에 따라 경북공영에 대한항공(KAL)호텔을 지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5월부터는 공인인증서 없이 전자상거래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중소기업 사업 승계시 세제지원 확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도입, 면세한도 상향, 게임 섀다운제, 인천 내항재개발 정책 재고 등은 당분간 제도 개선이 어렵거나 정부가 수용하기 어려운 과제로 분류됐다.

정부는 27일 서울청사에서 현 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지난주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제기된 현장건의 과제 52건 중 푸드트럭 허용, 자동차 튜닝규제 완화 등 41건을 수용하기로 했다. 이중 27건은 상반기중 조치를 완료하고 14건은 연내에 마무리할 방침이다.

먼저 정부는 푸드트럭 허용을 위해 최소 화물 적재공간(0.5㎡)을 확보한 경우 일반 화물차를 푸드트럭으로 구조변경할 수 있고 유원시설업소내 식품점개업 영업신고시 자동차 등록증만 확인한 뒤 영업을 할 수 있도록 관련법 시행규칙을 7월까지 고치기로 했다. /연합뉴스

정부는 또 자동차 구조·장치 중 안전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자동차 튜닝 승인이 필요한 대상을 대폭 축소하고 튜닝부품 인증제 시행근거를 마련키로 했다. 이에 따라 승합차의 캠핑카 개조 등 여가활동형 튜닝이 활성화될 전망이다.

취업유예를 위해 관할 구역 5km 이내의 재과점 뺀만 구입하도록 한 거리제한 규제는 6월에 사라진다.

이중 부담금 문제로 5조원대의 투자가 막힌 여수산업단지내 공장 증설 문제는 지가상승분 50% 범위에서 공공시설 설치를 부담하되 해당 비용을 지가차액 환수시 공제하는 방향으로 6월 까지 풀기로 했다.

KAL 호텔 등 학교주변의 관광호텔 입지는 교육부의 훈령개정, 안전행정부의 시정권고 등을 통해 유해시설만 없다면 설치를 허용키로 했다.

노후자금을 위한 퇴직연금의 자산운용 수익률이 높아질 수 있게 8월까지 감독규정을 바꾸고 30인 이하 중소기업 근로자 퇴직 연금에 대해서도 공적자산운용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소기업 퇴직 연금기금제도’를 연내 마련할 방침이다.

규제개혁회의의 후속 조치 주요 내용

건의사항	후속 조치
튜닝규제완화	안전지장 없는 범위 내 승인대상 축소
푸드트럭허용	일반화물차 푸드트럭 구조변경 기능토록 개선
연대보증면제 확대	연대보증면제 민간 금융기관까지 확대 적용
벤처창업 인증 중폭 개선	인증제도 선진화추진단 4월 중 구성, 개선방안 마련
부패 영업 거리제한 완화	관할 구역 5km 이내 재과점 뺀만 구입 제한 삭제
청년인턴제 소상공인 사업장 허용	청년인턴제 일부 업종 대상 5인 미만 기업까지 확대
회평, 회관법 대비 기업 지원	산업계지원단 4월 중 구성, 비용 지원
외국근로자 고용신고 일원화	고용부와 법무부 무언론 연계시스템 6월 중 구축
외투기업 세무조사 애로 해소	수입금액 500억원 미만 중소기업 세무조사비용 축소
공무원 및 지자체 인센티브 제공	규제개혁 우수 지자체, 공무원에 감사면제 및 표창
종합의료시설 용지제도 개선	종합의료시설 용지에 전문 및 일반병원도 입주 가능
스마트폰센서 의료기기 인증 애로	스마트폰 심박측정센서와 의료기기 인증 없이 출시 가능
외국 교육기관 어학연수 허용	국내외 학생에 국내에서도 영어연수 가능
학교 주변 관광호텔 입지 허용	유해시설 없는 관광호텔 허용 추진
영화산업 불공정 행위방지	불공정행위 현황 애로 점검 및 실태조사 실시
택배차량 증차	택배분야 차량 증차 방침 우선 고시

<자료: 기획재정부>



아시아나항공 에어버스380 운항

26일(현지시간) 독일 함부르크 에어버스 도색공장에서 도색을 완료한 아시아나 380 1호기가 격납고를 빠져나오고 있다. 이 비행기는 5월 말 프랑스 툴루즈에서 인수식과 인천공항에서 도입식을 가진 후 6월부터 단거리 노선인 나리타, 홍콩 노선에 운영될 예정이며 이후 중장거리 노선 경쟁력 강화를 위해 8월부터 LA노선에 투입될 계획이다. 이외에도 아시아나항공은 올해 2대 도입을 시작으로 2015년 2대, 2017년 2대 등 총 6대의 에어버스380을 도입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아시아나항공, 박삼구 회장 대표이사 선임

아시아나항공이 박삼구(사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을 대표이사로 선임했다.

아시아나항공은 27일 오전 서울 강서구 오쇠동 본사에서 제26기 정기주주총회를 열고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을 사내이사로 신규선임했다. 박삼구 회장과 함께 김수현

전 에어부산 대표이사도 사내이사로 새로 선임했다.

아시아나항공은 주총에 이어 이사회를 열고 이들을 새 대표이사로 선임함으로써 아시아나항공은 박삼구·김수현 각자 대표이사 체제로 운영된다. 기존 운영부 대표이사는 물러났다. /임동률기자 exian@kwangju.co.kr



사외이사로는 정창영 전 연세대 총장, 정건용 전 산업은행 총재가 재선임됐다. 재무제표 승인, 감사위원 선임, 이사 보수한도 승인 등 나머지 안건도 원안대로 통과됐다. 이사 보수한도는 27억원으로 동결됐다. /임동률기자 exian@kwangju.co.kr

▲ 코스피지수 1977.97 (+13.66)	▼ 코스닥지수 541.46 (-2.67)	▲ 금리 (국고채 3년) 2.88% (+0.01)	▼ 원·달러 환율 1071.50원 (-3.50)
-----------------------------	---------------------------	--------------------------------	-------------------------------

남원시의회는 항상 시민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꿈과 희망을 여는 남원시의회! 남원시민의 행복을 약속합니다!

남원시의회